

8월 MSCI 정기변경 전략

편입 종목군의 증가, SK텔레콤 비중 상향조정



고경범 Passive/Quant
gyeongbeom.ko@yuantakorea.com

8월 MSCI 정기변경

8월 MSCI 정기변경(8/8일 발표, 8/26일 리밸런싱)의 종목 편출입은 7/15~7/28일 간 10거래일 기준으로 선정. 올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대비 높은 상대 성과로 종목 편입 허들은 크게 상승하면서, 편입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도 역시 증가.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의 편입 가능성을 'High'로 제시. 심사대상기간 시가총액은 9조원대~13조원대를 기록. 편입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

HD현대마린솔루션의 편입 가능성을 'High'로 제시. 당사 패시브가 추정하는 Cutoff(편입 기준 시가총액)의 보수적인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유동시가총액 허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현대건설의 편입 가능성을 'Mid'로 제시. 이번 정기변경 종목 선정일이 1일차인 7/15로 선정될 경우,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 HD현대미포, 한화의 편입 가능성도 'Mid'로 제시. 초기 4거래일 기준 당사 패시브 Cutoff에는 모두 미달하지만, 역시 Cutoff의 하향 수준을 감안하면, 현대건설과 함께 편입될 수 있는 수준.

삼성증권의 편입 가능성은 'Low'로 제시. 동사의 편입은 Cutoff 하향조정과 종목 선정일이 7/15일로 지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편입이 가능해 보임.

이번 정기변경에서 종목 편출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Worst Case에서는 최대 4개 종목까지 편출될 수 있지만, 기본 전망은 2개 종목 수준에서 편출될 것으로 판단.

LG이노텍과 SKC의 편출 가능성을 'High'로 제시. 기존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수준에서 가장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스크린됨. CJ제일제당은 편출 가능성을 'Mid'로 제시. LG디스플레이, 오리온의 편출 가능성을 'Low'로 제시.

SK텔레콤 비중 상향 조정

SK텔레콤은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Foreign Room)이 상승해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동사는 USIM 해킹 사태 이후, 동사 외국인 지분율은 38.76%까지 급락. 국내 통신주의 49% 외국인 보유제한 대비 동사가 투자가 가능한 지분율은 20.9%까지 상승.

2015년 이후 국내 종목에서 외국인 지분율 이슈로 기존 종목의 편입비중이 상승했던 Case는 16.2월 SK텔레콤, 20.2월 LG유플러스의 비중 증가 2회 분. 배당수익률의 메리트가 존재했던 주가 구간에서 패시브 자금 유입도 진행되면서 인덱스 성과는 유효했던 경험. 이번 변경에서 SK텔레콤의 비중 증가 관련, 자금 유입은 +864억원 수준으로 예상. 동 이슈의 선반영은 미진행되어 내일 발표 이후 모멘텀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8월 MSCI 정기변경

8월 MSCI 정기변경이 내일 8/8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종자금의 지수 리밸런싱은 8/26일(화) 종가 기준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정된 심사 대상기간 규정에 따라, 종목 편출입은 7/15~7/28일의 10거래일 중 임의 지정된 거래일 기준으로 선정된다.

올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대비 높은 상대 성과로 종목 편입 허들은 크게 상승했다. 편입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도 역시 증가했다. 당사 패시브의 기본 전망은 최소 4종목, 최대 8종목 선에서 신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본다.

LIG 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의 편입 가능성을 ‘High’ 로 제시한다. 이미 이전 정기변경부터 후보군으로 시사된 종목군이며, 심사대상기간 시가총액은 9조원대~13조원대를 기록했다. 편입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편입 가능성을 ‘High’ 로 제시한다. 당사 패시브가 추정하는 Cutoff(편입 기준 시가총액)의 보수적인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동사 편입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유동 시가총액 허들은 초기 4거래일 모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의 편입 가능성을 ‘Mid’ 로 제시한다. 이번 정기변경의 종목 선정일이 1일차인 7/15로 선정될 경우,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후 거래일에서는 당사 패시브의 Cutoff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실제 Cutoff 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레이팅에 반영했다.

HD 현대미포, 한화의 편입 가능성도 ‘Mid’ 로 제시한다. 초기 4거래일 기준 당사 패시브 Cutoff 에는 모두 미달하지만, 역시 Cutoff 의 하향 수준을 감안하면, 현대건설과 함께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증권의 편입 가능성은 ‘Low’ 로 제시한다. 동사의 편입은 Cutoff 하향조정과 종목 선정일이 7/15로 지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편입이 가능해 보인다. 타 종목 대비 편입 가능성이 더 낮아 레이팅은 더 낮지만, 23년 QCIR(Comprehensive QIR, 분기 유니버스 업데이트) 시행 이후 종목 선정일이 초기 거래일에 선정되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8 월 MSCI 정기변경 예상

(억원, %, X)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편입	A079550	LIG 넥스원	702	132,660	2,384	3.39	1.80	22.9	82.7	High
	A000150	두산	877	99,969	1,347	1.54	1.35	9.0	81.4	High
	A298040	효성중공업	858	119,168	1,963	2.29	1.65	43.8	152.1	High
	A443060	HD 현대마린솔루션	228	92,348	968	4.24	1.05	9.3	34.6	High
	A000720	현대건설	978	79,285	1,544	1.58	1.95	-0.1	74.5	Mid
	A010620	HD 현대미포	728	79,205	1,423	1.96	1.80	15.3	15.2	Mid
	A000880	한화	423	68,212	817	1.93	1.20	8.3	86.1	Mid
	A016360	삼성증권	334	63,224	1,326	3.97	2.10	1.3	34.6	Low

자료 : MSCI,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정기변경에서 종목 편출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Worst Case 에서는 최대 4개 종목까지 편출될 수 있지만, 당사 패시브의 기본 전망은 2개 종목 수준에서 편출될 것으로 보인다.

LG 이노텍과 SKC 의 편출 가능성을 'High'로 제시한다. 기존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수준에서 가장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추려진다.

CJ 제일제당은 편출 가능성을 'Mid' 로 제시한다. 2종목 대비 지수 잔류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추가 편출이 진행된다면 동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한다.

LG 디스플레이, 오리온의 편출 가능성을 'Low' 로 제시한다. Cutoff 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예비적 차원으로 제시하지만, 2종목까지 편출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

[표 2] 편출 종목 예상

(억원, %, X)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편출	A011070	LG 이노텍	274	37,110	-658	-2.40	-1.77	2.9	13.1	High
	A011790	SKC	248	37,414	-567	-2.29	-1.52	-9.4	-2.8	High
	A097950	CJ 제일제당	134	37,560	-631	-4.72	-1.68	-4.6	2.7	Mid
	A034220	LG 디스플레이	204	54,750	-828	-4.05	-1.51	17.7	31.3	Low
	A271560	오리온	128	43,806	-939	-7.34	-2.14	-4.5	-9.7	Low

자료 : MSCI,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텔레콤 비중 상향 조정

SK텔레콤은 외국인 보유 한도 대비 마진(Foreign Room)이 상승해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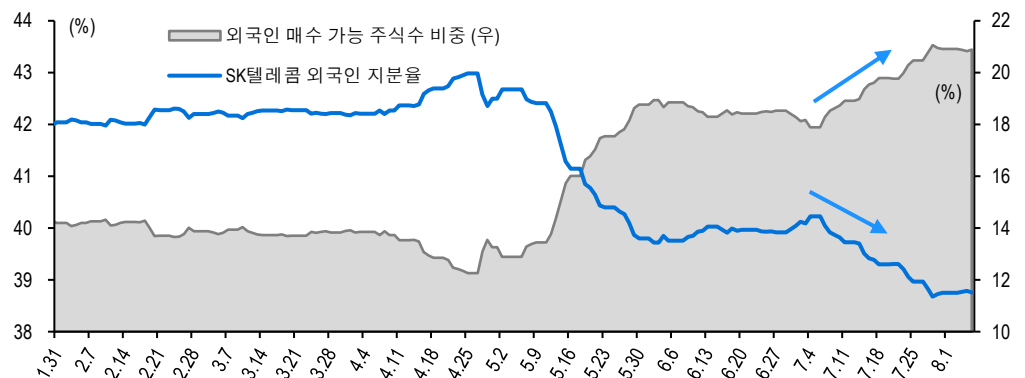
MSCI가 지향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유동성 측면에서, 외국인 보유제한 대비 외국인 매수 가능한 주식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사는 USIM 해킹 사태 이후, 동사 외국인 지분율은 38.76%까지 급락했다. 국내 통신주의 49% 외국인 보유제한 대비 동사가 투자가능한 지분율은 20.9%까지 상승했다.

2015년 이후 국내 종목에서 외국인 지분율 이슈로 기존 종목의 편입비중이 상승했던 Case는 16.2월 SK텔레콤, 20.2월 LG유플러스, 20.8월 SK텔레콤의 3회 뿐이다. 편더멘탈 이슈로 개별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감소로 이어졌지만, 배당수익률의 메리트가 존재했던 주가 구간에서 패시브 자금 유입도 진행되면서 인덱스 성과는 유효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변경에서 SK텔레콤의 비중 증가 관련, 자금 유입은 +86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 이슈의 선반영은 미진행되어 내일 발표 이후 모멘텀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트 1] SK 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율 하락으로 편입비중 상승 예정



자료: MSCI,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편입 비중 상향조정 예상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가총액 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억원, %, X)
상향	A017670	SK 텔레콤	347	120,927	864	2.49	0.71	3.5	4.8	High

자료 : MSCI,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고경범)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